

제973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11월 3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열흘 앞둔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임 열린다

한국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 7일 저녁 7시30분 두란노홀

러브소나타가 열흘 남았다. 그동안 군마에서는 실행위원회 모임과 큐티세미나, 궐기대회 등 러브소나타를 위한 준비에 힘써왔고, 군마 지역교회 행사에도 아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등 현지는 이미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7일(목)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는 군마 러브소나타 참가자를 위한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임'이 열린다. 이날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본부는 "일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며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1월 13-14일 군마 베이스아 문화홀에서 열리는 '군마 러브소나타'는 일본에서 19번째로 올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다. 13일에는 교회 부흥세미나와 가스펠 나이트가, 14일은 CEO 포럼과 러브소나타 문화전도집회가 열린다. 문화전도집회 당일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강사로, 김영미 소프라노, 배재철 테너, 신상우 피아니스



일본에서 올려 퍼지는 19번째 사랑의 노래 '군마 러브소나타'. 11월 7일에는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임이 진행된다.

트, 송철나무 플루티스트, 가수 심수봉, 온누리장로합창단, 니지마학교성가대, 박진아 작가(샌드 애니메이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 참가자팀에는 온누리 장로합창단과 CGNTV

운영위원회, 온누리복지재단이 함께하기로 했다. 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군마. 군마는 유야사 지로 장로, 우찌무라 간조 등 일본 기독교 대표들로 잘 알려

진 곳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 만 쿠사츠, 미나카미, 아카호운전 등 손꼽히는 온천으로 유명한 집합처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수험생 자녀 위한 '학부모 기도회' 진행

어머니들의 기도 열기 뜨겁다

11월 7일(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어머니들의 기도도 뜨겁다. 온누리 각 캠퍼스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빙고를 비롯한 온누리 캠퍼스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하고, 수능 당일에는 수능은종일기도모임이 수험생 시험 시간에 맞춰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캠퍼스에서는 지난 10월 1일은 종일 기도회를 오픈했고, 수능 당일에는 6층 본당에서 수능종일기도회가 열린다.

한편 수원 캠퍼스에서는 오늘(3일) 주일예배 때 수험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OEM, 오늘 고아 위한 특별예배!

도곡 오전 11시30분, 서빙고 오후 4시

11월 첫째 주일은 'Orphan Sunday (고아 주일)'로 전 세계의 고아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오늘(3일) 영어예배(OEM)는 고아 어린이들을 초청해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고아들을 위한 주일예배'를 드린다.

이번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의 새 생명과 어린이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그 생명과 사랑을 고

아들에게 전하고 선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예배는 도곡 오전 11시30분, 서빙고 오후 4시 진행되며,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수지 고의 특별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서빙고 영어예배에서는 고아 합창단의 단독 특순도 이뤄진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희망콘서트로 초대합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적장애인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챔버'의 희망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6일(수)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이뤄진다. 게스트로는 작곡가 주영훈, 가수 양파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콘서트 입장권 가격은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이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에 한해 30% 할인된 가

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주일 각 캠퍼스 데스크).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한 교사는 "우리 사랑챔버의 공연이 최정상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연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감동의 크기는 세상 어느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크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티켓예매 및 문의: 010-8725-6106
http://intercgnv.net/hope_concert

/ 조유진 기자

남양주 9주년

오늘, 11시30분 감사예배

2004년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에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띠고 창립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오늘(3일) 창립 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오전 11시30분 예배 때 진행되며,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의 특순과 교회에서 마련한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누구나 가는 대학, 크리스천은?

CGNTV, 크리스천 학부모 위한 입시설명회

11월 7일은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대입과 진학에 대한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가져야 할까? CGNTV가 서울대, 한동대 입학사정관을 지난 번수연 박사와 함께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해답을 찾아가는 입시설

명회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입시설명회의 주제는 '누구나 가는 대학, 기독교 학생은 어떻게 가야 하나.' 현재 CGNTV 홈페이지(www.cgnv.net)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 정지은 기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다윗과 하나님의 집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삼하 7:1~13

더 많은 책임을 갖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가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환경, 위험한 환경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의 위험을 통해 훈련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힘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과 권위를 쥐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종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다윗을 가혹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명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예루살렘에 예배의 도시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고 참된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런 평화와 안전은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돔람 동굴에서 400여 명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동굴 속에서 40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백향목의 은은한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는 정말 좋은 일이고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번영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은 궁핍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제외하고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축복과 번영이 주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환경이 좋아질수록, 사는 집의 평수가 넓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제 내가 영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있구나!' 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행히도 다윗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바로 그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제압하셨고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전을 주셨고 경제적인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어떤 민족과 나라도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에 처해 있을 바로 그때에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고 허영과 방심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언약궤가 놓여있는 장막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광야를 다닐 때에 옮겨 다니는 장막에 거하고 있구나.'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고, 그의 잠자리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불편함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의 실수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

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1~3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는 백향목 왕궁과 장막을 비교하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을 이동식이 아닌 온전하고 영구적인 집으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감동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3절).

왕이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대개 왕은 자신이 권위가 있으면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를 보면 왕과 교황이 서로의 권력과 권위를 다했을 때 국가와 교회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겸손하게 자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아직도 겸손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단이 다윗의 그 말을 듣자마자 감동을 합니다. 나단의 처지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선택하고 했던 일들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도 세심하게 묻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선지자로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옳은 부분도 있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옳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심하게 여쭙고 봐야 할 선지자가 듣자마자 대답한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기다려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해야 하는데 바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 뜻

사실 목회자들도 나단과 같은 실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배당을 보니 너무 좁고 협소해서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제가 큰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뭐라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러지 않을까요?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감동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까? 헌당하겠다는데 말릴 목회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교역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 만남이 있었던 후 나단이 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단이 빠졌던 오류, 또 다윗이 빠질 수 있었던 오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질지 모릅니다. 나의 동기가 순수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개 그 영역까지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수한 헌신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거나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순수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자하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행하려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면 내가 택한 방법과 계획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5~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는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처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5~7절).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일정한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 종교적인 신으로 만들 어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통해서 함께 옮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장막으로 옮겨 다닌 줄 아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어떤 왕에게 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가 아닌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함께 거하신 이유를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는 첫 번째 위험을 지적해 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가 백향목 궁전보다 더 멋진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집에 갇힌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해서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은 그곳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백성의 생각이 고정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깁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 신전에 가야만 신을 만납니다. 그 신은 신전에 거하는 신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공간에만 머무는 신입니다. 그래서 열등한 종교일수록 공간을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열등한 신, 열등한 종교일수록 공간을 자주 신비롭게 꾸밈니다. 무당집을 가보십시오. 정말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공간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신이 그 안에만 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절의 두 번째 이유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 떼를 따라다녔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

라엘의 기억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네가 베들레헴 목동이었을 때에 누가 너를 선택했느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훈련했고 내가 너에게 번영을 주었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했다. 지금의 너를 있게 한 것은 누구냐? 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권, 섭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복 주었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 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네 날들이 끝나고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10~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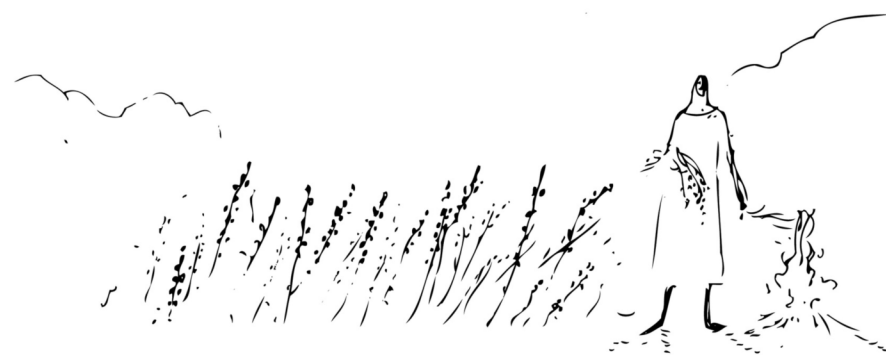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히브리말로 ‘집’이라는 단어는 ‘왕조’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어떤 때는 집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왕조라고 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집이라고 해도 되고 왕조라고 해도 됩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물리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집은 왕조였습니다. 혈통적인 왕조가 아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말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14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아들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보이는 집은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학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흔히 서빙고 성전, 양재 성전이라고 하는데 절대 성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말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일러스트 yje



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 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8~9절).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단어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전체에서 ‘내가’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 단어를 반복하십니까? 주어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위대해.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는 존재야. 제발 주어를 바꾸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4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온누리장로합창단 첫 정기연주

“지난 1년 동안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6일 양재 온누리 사랑홀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출연진들의 가족, 친척 관객을 비롯해 600여 명의 관객들이 장로들의 멋진 공연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때 마다 사랑홀에는 박수소리가 가득했다.

연주회는 온누리장로합창단이 ‘높이 계신 주께’ 찬양을 시작으로 10곡 이상의 찬송가와 성가를 불렀다. 특별 순서로 출연한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와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힘찬 연주와 감동적인 울동, 찬양으로 연주회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날 연주회 마지막에는 온누리장로합창단의 각 장로들이 모은 후원금을



온누리장로합창단이 지난 10월 26일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CGNTV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 참석한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 되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이 영적 군사 같다”라며 “영적지도자로, 예배자로, 합창단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

사드리다”고 말했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작년 10월 7일 결성돼 2013온누리부흥축제와 특별 새벽예배 특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오는 군마리브소나타 특순을 섬길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성령, 주님이 남기신 위대한 약속!

오는 9일, 52회 성령수련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제 52회 성령수련회가 오는 9일(토)~10일(주일) 양일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윗동산에서 열린다. 주제 강의를 이해영 목사가 진행하며 약속된 성령의 임재, 전능한 성령의 역사, 전적인 성령의 동행, 감동적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선포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아이스콜을 통

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

성령수련회 사역팀에서는 “성령수련회는 가슴 사리도록 감동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이 은혜로운 자리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김항철 총무 010-6600-8442, 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서빙고), 010-5729-0153(양재)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사별여성을 위한 모임 ‘야베스맘’

2013 가을세미나, 오는 5일부터~

사별여성들을 위한 모임 ‘야베스맘’에서 가을 세미나를 연다. 야베스맘 세미나는 사별의 슬픔과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주제는 사별여성의 가정과 자녀 양육, 재정관리와 재테크, 사별의 심리 이해와 극복, 사별여성의 영성생활 등이며, 김성목 장로, 김의수 재무상담전문가, 황혜리 교수, 이강학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일부터 시작해 11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9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남편을 잃은 사별 여성 또는 사별사역에 관심있는 성도들이다. 장소는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403호이며 회비는 3만원(저녁식사, 교재비 포함). 접수는 아이스콜을 www.ionnuri.org 통해서 받는다.

야베스맘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건강한 사별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영성과 소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거룩한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대청 ‘iWe 4기’,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iWe 4기’가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 ‘iWe’는 ‘I will walk with you’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천 청년들

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커플 매칭 사업으로 청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대학 청년부를 섬기는 멘토들이 이 사업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해왔다.

1주차는 오는 11월 9~10일 평택 그릿

시내 수련원에서 점심식사 및 자기소개, 보물찾기, 강의, 댄스, 데이트 등을, 2주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주에 두 번씩 3주 동안 6번 만나는 주중 데이트가 시작되며, 2주차는 11월 30일 시티파크 연회장에서 질의응답, 결혼특강, 선택전 대화시간, 선택 등을 하며 마무리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서빙고 특별한초대

일시: 매주일 저녁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11월 3일 - 예수가 ‘길’이다
11월 10일 - 예수가 ‘진리’다
11월 17일 - 예수가 ‘생명’이다
11월 24일 - 예수가 ‘다’

교회? 저 할 말 있어요!
복음의 돌직구

교회에 ‘단지고 싶은’ 한마디, 교회에서 ‘듣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주세요. 동영상, 음성녹음, 이메일 다 좋습니다. 특조를 사랑하는 분들의 “함께” 프로젝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실 곳:
special7pm@gmail.com

‘블랙가스펠’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로 오세요!



“열린 계절이 찾아오고 어느새 찾아온 가을 그 쌀쌀한 바람 사이로 마음 한 편을 따뜻하게 채워줄 2013 블랙가스펠 콘서트”

온누리교회 전도본부에서 크리스

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블랙가스펠 콘서트’를 연다. 이번 블랙가스펠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는 오는 11월(월)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미디어 군대(Media Army) 찬양팀과 더불어 양동근(블랙가스펠)과 헤리티지, VOS 박지현, 잭스키스 강성훈, 걸그룹 타픽, 레드애플 이민용, 한스밴드 김한샘 등 화려한 출연진이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를 주관한 전도본부에서는 “음악 안에 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깊은 소울의 감동을 누리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12월 목상의 집에서 진행된 야베스맘 수련회.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자서전쓰기 강좌

양재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자서전쓰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이 강좌는 각자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강좌는 ▷이야기의 의미구성과 파워

▷인간의 발달단계를 통해서 본 자기성찰 ▷가게도를 통해 본 자기발견 ▷자서전을 통한 힐링 등의 강의와 워크숍으로 구성됐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스라엘홀에서 열린다.

문의 02-572-1614

/ 조은실 기자

“예술 통해 연합 이룹시다!”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 12일까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전시실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KCAF(Korean Christian Art Feast) 개최예배’가 지난 10월 29일 광림교회 본엘성전 본당 1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화해의 아이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후 5:17~18)’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정식 목사(광림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 위로자가 되신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수많은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화해자와 위로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한 반태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이번 작품 전시회를 통해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모여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예술의 이름으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예배를 마친 후, 전시관으로 이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가 지난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사진은 온누리아트비전을 포함한 4개의 부서 대표 목회자들과 함께 전시실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장면.

동해 테이프 커팅 및 작품 감상을 했다. 이번 전시는 KCAF 2013 운영위원회 주최로, ‘기독 미술 50인 50색’으로, 50명의 작가의 작품들이 각각 50개의 부스에 전시되어 있으며, 10월 29일~11월 12일까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전시실(2층)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온누리

아트비전은 2012년 4월에 조직되었으며, 예술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계속해서 온누리아트비전의 다양한 작품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양재 헬로맘 스쿨이 지난 1일 개강했다. 이날은 이정선 사모의 강의가 있었다.

엄마를 건강하게 하는 스쿨

양재 헬로맘 시작

“주님, 어머니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엄마들을 위한 헬로맘 스쿨이 시작됐다. 헬로맘은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난 1일(금) 첫 시간에는 이정선 사모가 ‘새 생명으로 사는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은 어머니를

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헬로맘 스쿨은 4주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엄마(김현미 목사) ▷꿈 도우미로서의 엄마(노희태 목사) ▷엄마 안에 엄마 있다(김미경 교수) ▷엄마 안에 자녀 있다(김미경 교수) 순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

문의: 송은영 팀장 010-3236-406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창조적 사역자 되십시오”

차세대 교역자 스쿨 ‘디딤터’

차세대 교역자를 위한 스쿨 ‘교역자 디딤터’가 시작되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디딤터는 차세대 교역자들의 온누리 목회철학의 이해를 돕고, 창의적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첫 주였던 지난 10월 30일(목)에는 이재훈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전 차세대 본부장과 비서실장이었던 때를 회상하며 경험담을 풀어놓았고, 성경

말씀에 나온 창조적 사역의 필요성, 도전받았던 사례 등에 대해 나눴다. 특히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조적 사역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 주(7일)에도 이재훈 목사가 ‘창의적 설교’에 대해 전하고, 14일에는 김한수 목사(한국NCD)가 ‘창의적 사역을 펼쳐고 있는 교회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 조은실 기자

서빙고 데코팀 봉사자 모집

대상: 손재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성도

내용: 교회 행사(러브소나타, 임직식 등)의 데코

일시: 11월 6일(수) 오후 1시

장소: 커피숍 내 미션홀

문의: 유혜정 집사(010-9026-8151),

류석인 권사(010-2824-3408)



찬양으로 하나 된 강남C공동체

한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페스티벌을 열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가족 됨을 고백했다. 각 8개 다락방이 열심히 준비한 합창과 악기연주, 율동, 인형극 등을 선보이며 팔색 매력을 뽐냈다. 사진은 1등한 총성 다락방이 찬양하는 모습.

/ 조은실 기자

목사안수 소감

“순종과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신 4:9).

지난주일 중등부예배 끝난 후 성도 한명(중2)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되셨으니 더 기대할게요” 웃으며 나는 인사했지만 되새길수록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느낍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맡기신 바를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원 목사(차세대)

“순종하며 삶으로 말하는 목회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던 어린 한 소년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작지만 전부를 드

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모습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첫 마음 잃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열정으로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며 삶으로 말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 길,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지킴을 살겠습니다.

/ 김도윤 목사(차세대)

예배학교로 오세요!

서빙고, 양재 오늘 오픈

서빙고 3기 예배학교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3기 예배학교는 5주 동안 매주일 오후 4-6시 성가대실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예배학교는 강의와 나눔으로 이뤄지며 김영진 목사가 강의를 진행

한다. 회비는 2만원이며, 아이스쿨과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양재 캠퍼스에서도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예배학교가 진행된다.

문의: 010-3735-8824 김향준 팀장(서빙고), 02-570-7347 유재홍 간사(양재)

/ 조유진 기자



기도제목

- 11월 4일(월) 이재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11월 5일(화) 러브소나타에 일본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 11월 6일(수) 교회부흥세미나의 강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 11월 7일(목)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 11월 8일(금) 러브소나타에 가장 적합한 좋은 날씨를 주소서.
- 11월 9일(토) 준비하는 봉사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 11월 10일(주일) 일본교회에 하나 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엄마의 기도등대가 자녀의 길 비춘다!

수험생 자녀 위한 ‘학부모 기도회’ 진행

서빙고, 눈물의 씨 뿌린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시편 126:5-6).”

오는 11월 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어머니들의 기도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수능 매일기도회는 오는 6일까지 매주 월~금 각 캠퍼스에서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7일) ‘수능 온종일기도회’가 서빙고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단순히 점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했다.

지난 30일(수) 서빙고 선교관 3층 꿈아이홀, ‘수능매일기도회’가 수요어머니기도회와 통합되어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참석했다. 어머니기도회는 ▷찬양과 기도 ▷말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희태 목사는 사무엘상 15장 17-2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사울을 실패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 스스로 무언가 잘 해내려는 그 교만함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늘 추구해야 한다. 간절한 기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고 전했다. 덧붙여 “수험생 아이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며 격려해주자”면서 수능을 앞둔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2013 수험생을 위한 5주 묵상집 ‘Log in(하나님께 접속하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묵상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양재, 가장 큰 응원 ‘기도’

10월 29일(화)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B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두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들렸다. 수능 열흘 전(28일)부터 시작된 수능매일기도회에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한 기도뿐 아니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병홍 목사(양재 차세대 예배)는 ‘걱정하지 말라’(마 6:25-34)라는 주제로 부모를 격려했다. 조 목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닌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참석자 강미라 어머니(강남B공동체)는 “큰 시



험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와 갈등이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 많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 힘든 시간들조차도 감사한 시간임을 깨닫게 됐

다”라며 “아이의 합격을 통해 믿지 않는 아빠가 지도 전도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수능 온종일기도회 안내

일자: 11월 7일(목)
시간: 오전 8시40분~17시

장소: 서빙고 본당
문의: 안민경 간사 02-3215-3523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

1. 골리앗을 만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재미있게 보았던 만화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극장이 아닌 '세종문화회관 별관'이라 불리던, 지금은 서울 시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서 보았습니다. 만화영화의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린이들로 꽉 찬 극장 안에서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화영화의 모든 장면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단연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맹이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었습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이기다

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마당에서 제일 멋지게 생긴 돌다섯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다윗처럼 때려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제 주머니의 돌맹이들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았습다. 만화 영화에서 본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실제의 돌맹이를 던져서 넘어뜨릴 골리앗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안 사실은 세상에는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할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골리앗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론 시험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상황이 '골리앗'이 되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그냥 어린 아이라고... 이러한 상황을 향해 여러분은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골리앗을 보며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은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2. 골리앗을 이기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많이 만나며 자라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시험,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며 살아왔을까요?

또 하나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학창 시절 중요한 시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시험의 답을 맞춰보았을 때 시험의 결과는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던 기억입니다. 이런 원치 않는 결과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신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마음도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베개를 새로 해주셨습니다. 기억으로는 메밀 베개였습니다. 좌절, 미안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있을 때 어머니는 모든 감정을 감추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며 '우리 아들 머리 총명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베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저녁에 그 베개를 베고 죄송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든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실망이 아닌 흐뭇한 모습이 당시에 만났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마음에 새겨졌던 흐뭇함이 지금 만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보이는 임시 앞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으로 승리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

외국인 피해여성 쉼터, 두레방 돕는 온누리영어예배

매달 한 번, 식사와 교제·나눔 가져

서빙고 온누리영어예배(OEM; Onnuri English Ministry) 인신매매사역팀 청년들이 지난 10월 26일(토) 두레방을 방문했다. 두레방의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쉼터로 평택에 위치해 있다. 두레방의 피해여성들을 섬기는 사역은 영어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역에는 5명의 청년들이 피해 여성들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두레방 쉼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레방 쉼터는 한국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쉼터입니다. 본 시설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특수한 지원 활동은 법률지원과 귀국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의료, 직업/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들을 통해 입소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에 못 이겨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 여성들을 직접 구조해 내기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한국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들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이주민’, ‘성매매 여성’이라는 차별과 낙인에 의해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주위의 이웃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정확한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달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한층 신장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성산업 현장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인신매매되어 괴로움을 당했던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범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극복하고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법적 시스템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신고 의지를 독려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동시에 그들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지원활동에도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수미 소장(두레방 쉼터)

후원 및 동참 문의

mysisterhome@hanmail.net, 031-611-9025

OEM 자전거축제, 함께 달리면 후원금이 2배

고아·국제정의사역팀 후원 행사 열려



온누리 영어예배 청년들이 고아들을 위한 후원행사 '자전거축제'에 참여했다.

고아들을 위한 아름다운 후원행사가 열렸다. 지난 10월 26일(토) Cycle for Hope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13 가을 아리벳길 자전거축제'가 열렸다.

한강 아리벳길 자전거코스에 모인 400명의 참가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어우러졌고, 각자가 선택한 16km, 40km, 80km의 자전거 코스로 주행을 했다.

Jubilee, New Philly 등 서울 지역 영어예배 성도들도 이번 행사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다. Oak Tree는 후원 대상 청소년들을 행사에 초

대해 함께 자전거를 타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의 주행거리 1km당 500원을 적립하여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제단 Oak Tree와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부의 국제정의사역팀(Hope Be Restored)에 후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Hope Be Restored에서는 국제인신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둘 것을 촉구하는 부스를 개설하고, 참가자와 가족들에게 솜사탕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호응을 받았다.

/ 정지은 기자

“고통받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사랑을...”



지난 10월 26일 온누리 영어예배공동체(OEM)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토요일마다 섬기는 두레방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두레방은 평택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곳을 마련해, 두레방 총사무실과 성매매에서 구조된 외국 여성들이 지내는 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필리핀 여성들을 만나다

여성들이 외국 땅에서 겪는 외로움과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 소송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잠시나마 그들을 달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매달 방문해왔다. 외국 여성들이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하여 이번 달에는 특별히 묵은지 김치와 함께 삼겹살을 먹기로 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길 소망하며 그들을 찾았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두레방 사역의 소망을 듣게 됐다. 앞으로 재정후원이 생긴다면 소송으로 인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석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처럼 기술을 개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단기로 체류하는 여성들에게는 커피숍과 같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이번 만남에는 피해 여성 두 명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필리핀 여성들이었다. 한 여성의 자녀는 고국에서 자녀가 인신매매로 팔려가 행방불명됐다고 했다. 그는 아직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여성은 두 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따로 떨어져 지낸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상처와 고통의 해결이 절실했다. 우리 공동체 청년들이 방

문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나눔으로 잠시 위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삶의 혼란과 상처와 고통은 진정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방문할 때마다 외국인 자매들의 상황과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석현 집사님도 같이 동참해주셨다. 집사님은 두 자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그때나 자신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한 필리핀 여성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터치하셨다고 고백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섬김의 손길 더 많아지길

한국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는 사업가의 말을 믿고 비자를 받아 왔지만, 그 꿈이 깬 그리 짓밟히고 성매매로 넘겨진 자매들, 지울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 자매들이 한국에서만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수천 명 중에 두레방과 같은 곳에 구조되어 오는 경우는 극히 소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 사역을 통해 만난 두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섬기는 두레방 아웃리치는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김의 손길이 더 많아지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 제이미노 자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전세계 열방 각 선교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은 목숨의 위협과 내전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쳐가도록 몸을 바쳐 헌신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중앙 아시아 D국, 남아시아 B국, 동아시아 A국, 중동 B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보내온 편지를 실었다.

“프0000 마을에서 누린 연합의 기쁨”

국가명: 중앙아시아D국
기후: 고산기후
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무슬림 명절날 이곳 관습대로 식탁을 차려놓고 마을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반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마당에 자라는 살구나무와 자두나무, 산딸기, 블루베리를 따서 잼을 만들고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병절임을 해놓는 일을 이곳 마을주민과 함께 하다 보니 친밀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만난 친구 M의 고향에 다녀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목요일 M의 집에서 갖는 모임에서 T씨에 사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기쁨

또한 감사합니다.

아내와 저는 지난 9월부터 매주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언어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가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서 언어를 배우면서도 이곳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편 조만간 한국에서 비닐하우스 자재를 실은 컨테이너가 선적될 예정인데 선적에서 현지 통관과 설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중앙아시아D국에서 김OO, 엄OO 선교사

기도제목

- 현지어를 잘 배우고 익히도록
- 비닐하우스 자재의 운송과 통관, 설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국가명: 남아시아B국
기후: 열대몬순기후
종교: 불교(95%), 가톨릭, 개신교

지난 6월 29일~7월 8일에는 한국 대학생 해외 봉사단이 이곳을 방문해서 현지학교 세 군데를 선정해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프로젝트 2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한류문화 인프라를 각 학교에 구축해주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사역은 현지학교 보수와 천장, 지붕교체 페인트 벽화 그려주기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가장 큰 문화홀에서 한국과 현지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27일~8월 2일에는 요셉청년부에서 총 14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8월 10~15일에는 서빙고 JDS에서 9명도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저

희 사역지인 북쪽마을과 중학교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JDS팀은 중학교와 북쪽 마을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신기해하며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홀리스타 태권도 사역장에서도 이 두 팀의 값진 땀방울과 기도가 빛을 바꿨습니다.

이들 방문 후 홀리스타 태권도 사역장에 필요한 시설비와 임대비를 온누리교회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남아시아B국에서 싼띠, 정OO 선교사

기도제목

- 홀리스타 태권도 사역장 허가서류와 비자를 잘 받도록
- 싼띠 선교사의 눈에 염증이 속히 치료되도록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의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국가명: 중동B국
기후: 지중해성기후
종교: 이슬람(65%), 기독교(34%), 기타(1%)

시리아 내부 정세는 수도 다메섹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곽의 기독교 지역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마을인 마알룰라가 반군의 공격을 받는 등 시리아의 기독교 지역들이 목표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에게 친정부성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협요소입니다.

이곳 현지 내에 난민이 2백만을 넘고 있고, 그 중에 시리아 난민이 1백만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아로부터 난민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중동B국 정부에서 UN난민기구를 통한 시리아 난민케어에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강도나 도둑으로 이곳 치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NGO 청소년 캠프와 여성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난민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매주 여성모임에 아내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난민 여성들이 모여 복음을 통해 그 삶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온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도록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저희 부부의 하나 됨으로 삶과 사역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 중동B국에서 이빛, 이샘, 라엘, 대니 선교사

기도제목

- 현지 내각, 치안이 바로 세워지도록
- 아내와 자녀들의 거주허가 신청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북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국가명: 동아시아A국
기후: 대륙성기후
종교: 라마교(90%), 이슬람교(5%)

기도해주신 덕분에 W가 동아시아C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듣고 정말 동아시아C국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여행객은 전혀 없고 W에게도 안내인이 계속 따라다녀 자유는 전혀 없었고, 사진도 모두 검사를 받아 통과된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C국 방문은 그 땅을 밟고 다녀온 것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예정보다 오래 있을 수 없었고 동아시아C국 측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을 꺼려해 빨리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NGO사역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후 1시간씩 바이블 칼리지 (전교인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

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비전스쿨을 시작합니다.

000교회 중등부가 주축이 되어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준비 중입니다. 10월 26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차세대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동역자들의 지속적인 중보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동아시아A국에서 한샘물 선교사

기도제목

- 겨울 난방기 및 보육시설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도록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교회개척운동(CPM)’ 세미나

OSOM 훈련생, 안식선교사 등 40여 명 참여

지난 10월 22일~11월 1일까지 교회개척운동(CPM) 세미나가 Acts29 비전빌리지 언더우드홀에서 열렸다. OSOM(장기선교사훈련)에 처음으로 도입된 CPM(Church Pioneer Movement: 교회개척운동)은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이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미남침례교회 국제선교부(IMB)가 전 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 특이한 교회들의 증가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CPM 전략의 주목표는 선교지에서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지도력을 이양하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0월 22~11월 1일까지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ITM)에서 CPM 전략을 도입해 선교사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교회개척을

돕는 운동을 할 것을 권면했다.

CPM 전략 세미나 기간 동안 이곳에 모인 40여 명의 OSOM 훈련생, 안식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개척 >재생산하는 교회 모델링 >재생산하는 전도단계 >성경적 모델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개척 전략 등 교회개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현장에 대해 좀더 실질적으로 아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희 선교사는 “CPM 전략은 현지에서 전도 대상자 및 이웃들과 접촉을 한 다음 전도, 양육, 교회개척 그리고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선교지 상황에 따라 접촉할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선교지 상황에 맞게 접촉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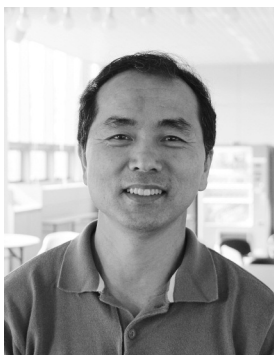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강의



비전빌리지 언더우드홀에서 개최된 교회개척운동 세미나.

와 토의를 통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고 접촉방법 및 전도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이철희 선교사

CPM이 무엇인가요?(정의, 개념)

CPM은 ‘Church Pioneer Movement’의 약자로,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개척 운동을 일으켜 폭발적으로 교회개척을 이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CPM의 과거: 배경 및 목적

두란노해외선교회(ITM)의 목표는 ‘교회개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교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교회개척이 이뤄지지 않았습다. 그래서 ‘어떤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교회개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선교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략을 알아보다가 미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IMB)에서 시작했던 CPM 전략이 현장 선교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CPM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IMB)가 1980년대 이후, 선교전략훈련으로 가장 적합한 CPM을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현재 미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IMB)에서는 5000명의 선교사들이 CPM 전략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CPM 세미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이런 선교전략으로 교회개척을 해야겠다는 예비선교사들이 적용하며 선교 사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개척운동’은 선교적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모으고 기초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준비 되는대로 빨리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전도하고 토착화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CPM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사는 현지에서 ‘교회개척’을 돕는 역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목표는 현지인에게 맡기고 선교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방법들을 적용하는 전략이 바로 CPM 전략입니다. 초기부터 현지인들이 전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양육 단계를 거쳐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고 또 다시 전도하고 개척하게 하면서 현지인들에 의해 교회개척 운동을 장려시키는 사역인 만큼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CPM의 미래: 앞으로의 방향

OSOM 22기에 CPM 선교전략을 도입해 훈련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 이후, 이 선교전략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CPM 전략만큼 원리적, 실제적인 부분을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개척매뉴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부분만 고쳐서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 보완할 부분에서는 CPM이 한국선교사에 의해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 개척지마다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맞게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와 양육 시스템은 한국선교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개발해 적용하면 될 것 같

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비전이 있는데 CPM 전략이 Acts29 비전을 세워가는데 가장 가까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인/터/뷰

“‘전도사역’에 큰 도전 받아”

선교를 나가는 가운데 싱글 자매인 경우에는 ‘교회개척’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어렵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이번 CPM 세미나를 통해 싱글자매도 ‘교회개척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개척’이라는 단어가 좀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전에는 전도, 양육, 교회

개척이 모두 별개의 사역인 줄 알았는데 CPM을 통해 하나의 큰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이번 선교훈련을 통해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를 나갈 때, 한 영혼을 반드시 전도하고 제자양육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김신화 훈련생(OSOM 22기)



JDS

Jesus Disciples School

JDS를 마치면서... 16기 간증문

2013년 JDS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 서빙고, 양재 수원, 인천 4개 캠퍼스 6개의 학교로 진행된 이번 16기 예수제자학교는 수료생을 포함 3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냈다. 총 26주 동안 은혜로웠던 JDS의 여정을 간증을 통해 들어보자.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주님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것”

전 꽤 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나 아이들이 속한 곳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남들이 피하는 일을 누군가 맡아서 해줘야 할 때, 전 제 몸을 아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시댁이나 친정에 성의 표시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이 아닌,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드리고 싶은 양의 최대치에 맞춰 드려곤 했습니다. 이런 분주함과 부담감은 과거에 대한 패배감과 후회감과 죄책감과 얽혀 제 속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추면 너무 괴로워지기 일쑤니 전 아예 제 상처들을 모른 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 했더랬습니다. 이는 마치 최면 상태에 있는 거와도 같아서 한동안 그 사실마저 잊고 있었기에 내적 치유 기간 동안 원치 않게 올라오는 나의 말바닥 문제들은 나를 당황하고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문제적 인간이었나. 내가 이토록 굵은 사람이었나.

강한 빛으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곁에서 보면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모습이 실은 ‘나’를 위해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과거에 대

해 후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던 마음도 철저히 ‘나’ 중심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 내가 있는 곳에 불화가 있을 수 없다는 고집스러움, 내 자신이 양심 없이 뒷짐만 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교만함, 내 자신이 성실하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아들 없는 내 엄마 아빠가 외로움을 느끼게 하기에는, 내 옆에 둘러리 서주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한 것은, 그저 내가, 내가 용납할 수 없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정되게 주신 재화를 계획성과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부리는 호기는 인정과 나눔이 아니라 탐욕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마음 뒤에는 돈을 더 씀으로 해서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관계에 있어 우선권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진정 두려워 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에 맞지 않을 때 간혹 맞서는 담대

함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진리 안에서의 고집과 독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네 식구의 수입원이 되는 남편의 병원이 망해 간다는 남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환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경쟁 병원도 새로 들어서서 이대로라면 문을 닫아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마음이 설렘니다.

지금까지 40년 조금 넘는 시간을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논리로 살고 결정하고, 선택하였던 나와 내 남편이 이제야 비로소 ‘주님 뜻대로’ 살 기회를 얻은 듯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허무시고 새롭게 세우려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병원자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재화를 주시든 안 주시든, 세상적으로 잘 나기든 안 나기든, 아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걱정이 다시 올라오고 짜증을 낼 때도 있을 겁니다. 모교 회가 이곳 온누리가 아닌지라 영적 갈급함으로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뜨겁게 눈물로 온몸으로 드리던 이곳의 예배와 영적 동지들을 정말로 그리워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내 지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눈을 감고 여기 JDS에서의 은혜들을 조용히 꺼내 볼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손으로 붙잡고 계셨는지 얼마나 세심하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해 낼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어라 말씀하실지 그 소리에 잠잠히 귀 기울여 기다릴 겁니다. 모든 것을 허무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저를 다시 세우고 계신 주님. 그 계획의 끝이 어찌될지 저는 알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 이선경



“힘든 믿음의 여정, 무사히 완주하기로 마음먹어”

JDS를 졸업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감동과 은혜가 눈앞을 스쳐 지나 갑니다. JDS수업은 이미 예배 전 찬양시간부터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었고 강사님들의 강의는 오랫동안 Sunday christian이었던 저에게는 처음 접하는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QT를 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의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수업과 모임은 아웃리치를 위해 조모임도 팀모임으로 바뀌었고, 시내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um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웃리치가 그곳 사람들로 음식들로 추억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미안바의 의료시설이 낙후되었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제 건강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기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팀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았던 저는 병원조차 제대로 없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웃리치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르던 날의 교가는 나를 너무나 슬프게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울었다는 것을 보이기 싫었던 나는 뒤에서 부르는 간사함을 모른 채 하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의 팀 모임을 한번도 빠지지 않은 것은, 백조가 남모르게 물 밑에서 발을 수십 번 움직여야 우아한 자태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남모르는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의 팀모임이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자매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도 눈물 많던 제가 그 날은 아찔 일인지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할 일을 다한 사람처럼 마음 한 구석이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자매님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새벽제단을 쌓았고, 자매님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QT를 하고 소책자에 묵상한 내용을 적고 자매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도 적었습니다.

매일 매일 저는 그렇게 혼자서 한국에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팀을 발표하기 전날, 저는 여섯 개의 커다란 아름다운

꽃이 내 품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여섯 팀을 품고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JDS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제가 가장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인내하는 것 등등.

아웃리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신 기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힘들어 하는 걸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제게 이 간증문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로마서 8장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이스라엘 민

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JDS를 마치면서 커다란 비전을 품기보다는 나 자신보다 나의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기로 다짐해봅니다. 또 믿음의 때로 만나 하나 된 소중한 자매님들을 더 사랑하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서로 독려하여 무사히 완주하기로 마음먹어 봅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저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 싶다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불가능해보였던 JDS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평생을 같이 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난 것이 비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헌신적으로 섬겨준 간사님들의 사랑 덕분에 부족한 제가 과정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희



재미있는 교회역사 이야기

사도 바울의 회심과 열두 제자들의 회심

신현우 교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Dr. Theol.), 저서로 《사본학 이야기》,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규칙: 참된 예수를 찾아서》등이 있다.

사도 바울의 회심: 급격한 회심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행 8:3).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 데에도 참여했다(행 7:58). 바울의 이런 행동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교회는 사도들의 케리그마(선포)를 통해 형성됐으며, 케리그마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는 그리스도(종말론적 구원자)라는 것이다(행 2:36). 바울은 이 도를 못마땅하게 여겼기에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것이다(행 9:2). 바울은 이 도를 그가 믿는 구약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바울은 저주의 원인이 예수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막 14:64).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 바울은 그들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무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고전 2:2). 이것은 예수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9:4-6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들은 음성이 이 변화와 관련됨을 알려준다.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도 들었다. 이 음성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들린 것이므로 하늘에서부터 들린 음성이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회심 후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21:23에 토대한 ‘과거의 확신’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믿음’의 충돌을 해소해야 했을 것이다. 바울의 신학은 이 충돌 해결 과정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을 하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한 계시 때문이다. 이 계시의 경험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이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변경은 신명기 21:23과 함께 구약성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구약성경을 계속 믿을 수 있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울의 신학을 형성하고 바울의 삶의 방향을 변경시켰다. 바울

의 회심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성경의 패러다임과 하늘에서 들린 계시의 충돌에서 발생했다. 이 충돌의 위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론의 틀로서의 구약의 패러다임과 그가 경험한 계시의 현실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는다. 바울의 심오한 신학은 이렇게 탄생했고 이 방인을 위한 사도의 위대한 삶은 시작됐다.

열두 제자들의 회심: 단계적 회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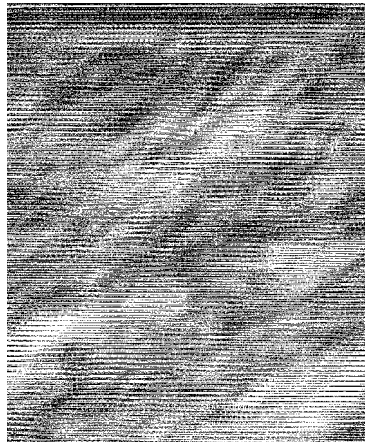
열두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을 통해 회심하게 됐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막 1:17). 예레미야 16:16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한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회심이다.

두 번째 회심의 단계는 예수께서 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다(막 8:29).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과정은 서서히 발생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메시아 표적들을 경험했고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질병 치유를 목격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고(막 4:39),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것도 목격했고(막 6:49), 떡 일곱 덩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체험했다(막 8:9). 이러한 기적들과 함께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축기 사역을 체험했다(막 1:26, 34; 5:13;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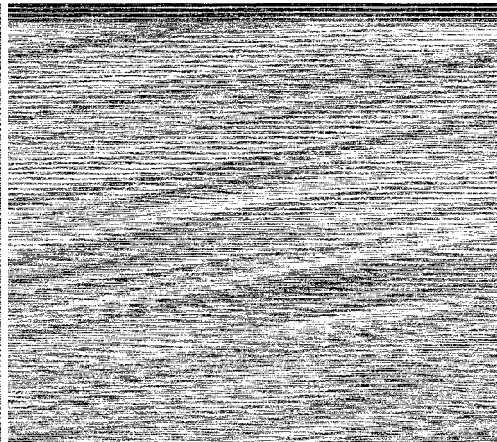
이러한 기적들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을 것이다. 광야에서 경험한 두 번의 기적적인 식사는 출애굽 시대의 만나를 연상시키는 표적이었고, 물 위를 걷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독특한 현상이었다(요 9:8, 11; 시 89:9).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메시아)와 관련된 표적이었다(눅 7:22). 이런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이심을 서서히 믿게 됐다.

제자들이 경험한 세 번째 회심의 단계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라 예수의 생각에 반대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즉



▲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계시의 음성을 듣고 급격한 회심을 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모습.



▲ 제자들은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회심했다. 예수께서 칠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

메시아)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막 9:2, 7).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 지적하시며 그들이 회심하도록 인도하신다(막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나와 아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께서는 고난 받으실 것을 비유를 통해 분명히 가르치신 후(막 12:8),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며 “언약의 피”임을 가르치신다(막 14:24).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맺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 가르침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 받을 것을 약속한다(막 14:31).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제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막 14:67-71). 이것은 그들이 아직 메시아가 고난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제자들의 회심의 네 번째 단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뤄진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신명기 21:23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깔끔히 버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였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전 15:5).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대속과 새 언약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며,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새 언약 체결의 피 흘림이었다.

제자들이 경험한 마지막 회심의 단계는 성령 강림을 통해 이뤄졌다(행 2:2-4).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음을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의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넘어 행동이 변하는 회심이었다. 그러한 최종적 회심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다. 회심의 완성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이뤄진다.

회심(회개)의 복음이 사라져 가는 시대는 곧 성령의 능력도 체험되지 않는 시대다.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회심(회개)하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회심을 체험하게 하셨다.

바울의 급격한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뤄졌다. 그는 예수가 신명기 21:23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여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게 되는 저주를 대신한 것이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갈 3:13).

제자들의 경우 회심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우선 예수의 활동에 헌신했고, 표적들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됐다. 그 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야 함과 그 고난이 대속과 새 언약을 위한 것임을 예수께로부터 가르침 받게 된다. 부활의 목적은 이 가르침에 대한 확증이었으며, 성령의 강림은 그들의 회심을 완성시켜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었다.

이와 같은 회심의 두 가지 유형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예수를 비판하며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바울처럼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회심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달하게 되는 믿음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메시아=종말론적 구원자)다”라는 믿음이며, 이 예수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죽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다.

* 〈목회와 신학〉 10월호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